

## 삼척소방서장님 께

지난 2월 16일은 1975년 삼척중앙시장이 개설된 이래 저를 비롯한 우리 시장 상인 모두가 가장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설과 그로 인한 비가림 시설의 붕괴로 중앙시장의 고객과 상인들, 그 소중한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이 눈보라 앞에 촛불처럼 사그라져갈 때, 한 줄기 희망의 빛마저 눈 속에 파묻혀 사라져 갈 때,,,,,

절망을 희망으로, 희망을 기쁨으로 만들어 준 소중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일처럼 달려와 주신 삼척소방서의 서장님을 비롯한 대원들의 따뜻하고 정성된 손길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더 이상의 말로도 눈물로도 그 이상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

물에 빠진 사람처럼 두 팔과 두 다리는 허공을 휘젓고 머릿 속은 깊은 물 속으로 잠기는 듯 무력해진 자신에 눈물마저 흘리지 못했습니다.

붕괴직후 눈 속에 파묻힌 사람들을 마치 자신의 가족인 것처럼 열과 성의를 다해 구조해 주신 소방대원분들과 군장병여러분들이 마지막 사람을 구조해냈을 때는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삼척중앙시장 조합장으로 지난 30여년간을 이곳 삼척중앙시장에 뼈와 살을 묻고 살아왔습니다. 또한 상인으로서 조합장으로서 항상 깨끗하고 성실하게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만 이 번 사건으로 그 간 생각할 수 없었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세상이 얼마나 따뜻한 지, 또 그 속에서 나눔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 번 사건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맞은 것이 사실이지만 주위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소방대원들의 사랑과 나눔에 힘입어 저를 비롯한 삼척중앙시장 상인 모두가 아직은 어렵지만 지역의 작은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소방서장님과 대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11년 3월2일

(사)삼척 중앙시장 조합장 정문학 올림